

#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11일(수)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대선이 끝나기 전에

# 정몽구를 더욱 몰아붙이자!

## - 비정규직지회 투쟁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하나다

현대차 노사 간에 불법파견 13차 본교섭이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첩담투쟁 56일이 넘어가고 있고 대선 투표일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본교섭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가 또 한 차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투쟁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섭에 앞서 11, 12일 실무교섭도 잡혀 있으며, 3지회는 공동으로 12일 4시간 부분 파업, 14일 주간 6시간 부분 파업, 야간 전면 파업을 확정했다. 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0일 지회 쟁대위는 13일 본교섭에서도 정몽구와 현대차 사측이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교섭결렬 선포와 전면적인 투쟁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채용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조금도 꺾고 있지 않다.

### 현 국면과 교섭의 의미

현 국면에서 사측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지나기를 고대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최소 수준의 방안을 강구하려 들 것이다. 지금 교섭은 오히려 비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을 지연,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 바로 해고자들 사이에, 조합원과 해고자 사이에, 조합원 사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고용의제자와 고용의무자 사이에, 하청노동자 사이에, 지회와 지부 사이에 놓여 있는 약한 고리를 더욱 파고들어 그들 사이의 거리를,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그들 사이의 감정을, 그들 사이의 투쟁방향과 전술에 대한 차이를 더욱 벌여지게 하는 데 교섭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을 뿐이다.

새삼스러울 것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 역시 투쟁과 단결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교섭을 활용해야 한다. 사측의 가증스런 행보를 폭로하고, 사회적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현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더욱 압박을 가하고, 무엇보다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와 투쟁요구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해고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3지회 간에 먼저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상황과 정세에 대한 공동의 판단과 인식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투쟁방향과 전술을 공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이 사측의 분열 책동에 맞선 단결과 투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선거가 끝나기 전,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현대차 비지회 투쟁은 지난 8월 이후, 특히 첩담투쟁을 시작하면서 지회 쪽에 분명 유리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현 단면만 놓고 보면 주도권은 지회에 있다. 사측이 아무리 불법파견을 인정치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사측이 주도하는 국면이 아님은 분명하다. 전체 정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사측은 벌써 징계, 해고, 업체폐쇄의 칼날을 맘껏 휘둘렀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 일시적이긴 하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정몽구도 전과 같이 노골적인 탄압과 폭력으로 일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노동자투쟁도 당연히 정세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투쟁 강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대선 이후는 그 상황에서 또 판단하면 된다. 지금 정몽구는 오직 대선을 피해갈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선 이후를 계산하고 있다. 정몽구에게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 지금 이 약한 고리를 모든 힘을 집중해서 흔들어야 한다. 지금 한 승부를 봐야 한다. 내년 1월 중노위 판정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중노위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때는 그 때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대처해야 할 일이다.

실사 연내에 결판을 못 짓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해 놓아야 한다. 내년 1월로 넘겨져 버린 금속 총파업도 그래야만 실제로 가능해지고 힘 있게 결행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특히 이번 주 안에 가능한 모든 투쟁을 최대한 강구해서 박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선 이후로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든, 지회가 여전히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지회의 주도권이 이후로도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 같은 조건을 흘려보내선 안 된다. 지금 정몽구를 세차게,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 곧 투쟁하는 노동자이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이 비지회 투쟁을 함께 책임지고 선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적어도 현대차 비지회 투쟁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쌍차투쟁과 별개가 아니다.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시작한 본래의 뜻과 취지가 바로 이들 투쟁과 결합하기 위해서이며, 이들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인, 정치적인 투쟁으

로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대선정국에서 적어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야권연대/ 정권교체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독립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투쟁과 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데 있다.

지금도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최선을 다해, 최대의 힘을 다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자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함께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투쟁하는 노동자, 노동자계급과 다른 별개의 특별한 무엇이 아니다. 반대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 자체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모든 투쟁에 앞장서고자 한다.

###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과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정치는 하나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투쟁과 정치를 분리하는 부르주아 정치, 개량주의 정치를 비난한다. 지난 진보정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층 관료지도부가 바로 투쟁을 정치와 분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에게 정치란 의회나 선거에 있지 않다. 투쟁하는 현장에,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곳에 바로 노동자정치가 시작된다. 노동자정치는 정세에 따라 의회, 선거를 경유,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을 전복, 대체하려는, 즉 ‘세상을 뒤엎는’ 정치다. 그래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현대차 비지회 투쟁 같은 정세적으로 핵심적인 투쟁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과 결합하여 전국적인 정치투쟁 전선을 세워내고 노동자정치의 실물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사활적인 임무를 두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외치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은 이러한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정치의 한 부분이다. 사측의 분열책동에 맞서, 그리고 야권후보가 말하는 고용의제자와 의무자 갈라치기에 맞서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해서 세상을 뒤엎는 투쟁으로 나설 때에 쟁취할 수 있는 계급적 요구이다.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조차도 정권교체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계급 정치투쟁의 전선을 칠 때만이 온전히 쟁취할 수 있는 요구이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과 함께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에 한판 승부를 보자. 선거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모두 세상을 뒤엎는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하자! **혁명**